



표준의 무상공개에 대한 속설

The Myth of Free Standards: Giving Away the Farm

- 표준기술협회(SES)주관 세계표준의 날 논문 당선작 -

저자 · Andrew Bank/CSSinfo 사업개발담당 부사장

번역 · 이봉국/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본부 전파방송표준부장

인 터넷으로 완전히 통합된 요즈음의 통신문화 속에서 “情報”라는 말이 최신 용어로 부각되었다. 개인용컴퓨터(PC)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져 아이들까지도 웹사이트를 찾아다닐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 마우스만 ‘클릭’ 하면 정보는 바로 손끝에 닿게 되었다. 약 200년 전에 **토마스 제퍼슨**(미국의 3대 대통령, 독립선언서 기초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정보는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통화(通貨)”가 되었다.

그러나 **제퍼슨**은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하물며 표준정보의 경우에 무상제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정보가 민주주의의 통화라면 표준은 범세계무역파트너를 연결시켜주는 가교(架橋)가 되는 것이다. 표준은 독특한 형태의 정보로서 이를 광범하게 유통시켜 제품 및 서비스로 구현하는 것이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필수요소이다. 표준개발자 및 이용자간의 합의(consensus)가 점증함에 따라 표준을 무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용과 개발을 증진시켜 교류를 강화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표준 옹호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즉 교량(橋梁)은 설계, 건설 및 유지·보수되어야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자유의사에 따라 표준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표준개발자금이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표준화과정 기여자(寄與者)와 비기여자(非寄與者)간에 지원(支援)의 불균형이 확대될 것이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게 될 것이다. 표준의 원가문제는 복잡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될 것임으로 “표준 : 유료화인가 무료화인가?”의 문제해결을 모색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본질적인 이유

표준개발과정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상당부분의 표준사용자 가운데서 자기들이 갈망하는 표준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여러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표준문서의 인쇄 및 배포비용 이외에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이다.

United Way나 다른 自願조직과 아주 흡사하게 표준개발자들은 개발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작업조정에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표준화계획이 입안되는 순간부터 사용자의 책상위에나 컴퓨터 스크린에 도달될 때까지 시험, 자재, 회의, 초안문서의 배포, 투표 및 표준의 최

초계획 채택 등에 자금이 소요된다. 5년마다 표준이 개정되어야 하며 재확인하거나 최신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철회하기도 한다. 이 모든 활동에는 표준개발기관(SDO)의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 어떤 기관에서는 소수의 직원으로 운영하지만 미국시험 및 자재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와 미국기술사협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등의 기타기관에서는 각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10여명의 전담직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단 표준이 개발되면 발간, 인쇄 및 홍보 등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사용자들은 자체의 요구에 맞는 표준을 찾아 자주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전문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표준의 활용을 증진하는데 상당한 재원을 소비하고 있다. 표준개발기관(SDOs)에서는 표준의 장점과 보전(保全)이 입증될 수 있도록 연방, 주(洲)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과 개발과정에 정규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시장에서의 표준의 상용화를 신뢰하기 때문에 SDOs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다.

표준을 배포·이용하는 시스템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지도 모른다. 카탈로그를 제작·유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유용성을 파악하게 한다. 책자나 다른 형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배포처에 직원을 배치한다. 전자문서 배포의 경우 인쇄비용은 적지만 전자문서출판, 전자파일유지, 온라인이나 기타 접속방식을 제공하는 시설과 장비 및 전자응용기술에 대한 고객지원 등 과중한 비용이 든다.

상품으로서의 표준

정보란 수혜자들에게 경쟁상황이나 시장을 보다 많이 이해하게 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루는데 이점을 제공해주는 약간의 지식이나

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정보는 과학기술, 기술혁신 및 창조를 연료(燃料)로 쓰고 있다. 정보는 설계, 생산 및 제작을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정보는 이익을 확대시키며, 능력을 증대하여 경쟁에 앞서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회사는 경쟁적인 이익의 획득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정보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는 가격이 매겨져 있는 상품이다.

표준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시장진출을 위해 합의된 규칙을 규정한 산업표준에는 상당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표준은 국내 또는 외국시장에서 회사의 입장을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하여 자기회사를 경쟁에서 앞서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은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한 회사에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지역이나 국제 표준에 적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이에 필요한 정보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인터넷문화로 확산된 대중의 생각과는 달리 정보는 공짜가 아니다.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정보도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표준 역시 개발비, 발간비, 마케팅 및 배포비용 등을 계상하여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거래해야 하는 것이다.

표준의 인지가격 손실

우리들은 표준이란 상당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미 단정하고 있다. 표준의 가치는 주로 시장에서 제품의 유용성과 제품의 안전 및 품질의 개선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표준은 아무래도 유형자산이라 보기 어렵고 소비자사회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렵게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정보 이용자들은 무료로 획득한 정보보다도 소정의 대가를 지불한 정보에 더 큰 가치를 부

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표준을 제공하면 인지된 가격이 대부분 격하되어 표준의 사용이 감소된다.

무료로 표준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자원단체에서는 표준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소비하고 있다. 표준의 시장수용성은 하나의 중요한 요건으로 제품개발의 필수부분이 되어야 하며, 제품이 최고로 안전하고 최상의 품질이어야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제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이용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만약에 표준을 무료로 제공한다면 원가계산서와 완성도를 어떻게 믿겠는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허여(許與)

“공짜니까 복사할 수 있다.”는 말은, 저작권법에 대하여는 호의적이지만 복잡성은 이해하지 못하는 저작권초보자, 인터넷-Surfer, 표준이용자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사실상의 도둑질에 관한 다량의 기록이 있다. 다수의 정보 탐색자들은 자기의 발표자료, 논문, 광고 및 기사 등의 작성을 위하여 무료로 이용하는 등 관심있는 것들을 정규적으로 복사하고 있다. 저작물에 대한 잘못된 충동은 저작권법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다수의 이용자들은 유료정보만이 저작권이 있다고 믿고 있다. 개별 저자만이 저작권보호를 받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서, 신문 및 잡지기사 등으로 유료로 발간된 정보만 보호받는다든 이상하게 그릇된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표준공동체에서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현재 표준이 가격표를 달고 나오더라도 문서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표준이용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수의 복사본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가격표의

제거는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다.

표준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면 일반적으로 표준을 무료로 복사한다고 생각하여 정보의 등급이 격하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불법복사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와 사용자에게 저작권침해를 사실상 허가해 주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는 재고의 여지없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도 텍스트와 그래픽을 배포하고 서버에 정보를 복사하고 자기의 저작물을 발표, 광고 및 기사화하는데 텍스트의 상당부분을 인용할 것이다.

프랭클린 피어즈 법률센터의 지적재산법교수인 **툼 필드**씨는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프리웨어의 경우와 비교하고 있다. 프리웨어는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복사배포가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소프트웨어지만 소프트웨어개발자가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

필드 교수는 일반대중이 분명히 합법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사배포하지만, 해서는 아니 되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대다수가 빈번히 이러한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고 말한다.

필드 교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체의 기호대로 소프트웨어를 변형하고 개서까지도 하고 있다. 공짜니까 전세계사람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North Carolina대학교의 법률도서관 법학교수 부장인 **Laura Gasaway**는 인터넷이 무료정보의 저작권을 이해하는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말한다. “이것은 도서관 사서와 교사를 위한 저작권법워크숍의 개인경험으로서 사람들은 ‘공공영역’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을 혼동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와 무료정보에 대한 사고방식이 팽배함으로 표준이 위협에 닥치기 전에 표준발행자들이 재고하도록 확신시켜야 한다.

회비의 증액, 불공정성 확대

최근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표준개발기관

(SDOs)은 표준판매수입 및 년간회비수입 가운데 한쪽에 의존하고 있다. 표준개발기관은 년간 사업예산에 맞추도록 표준판매나 회비수입으로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으로 표준판매가 감소되면 회비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SDOs가 필요에 따라 비용을 삭감하는 수밖에 달리 대안이 없다.

회비를 납부하는 회사 및 개인은 표준개발과정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갖고 자사의 특정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유리한 표준으로 이끌어가고 자주 표준구매의 할인혜택도 받는다.

회원가입을 원하지 않고 개발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표준사용자들은 아직도 표준의 혜택을 상당히 누리고 있다. 이를테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표준을 구현하고 표준을 이용하여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표준의 원가는 표준개발과정에서 사용자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준판매와 회비의 통합으로 회원과 비회원(또는 유료 및 무료이용자)이 표준개발과정을 공동 지원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표준을 모든 비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제일 먼저 회원의 비용부담(회비)이 증가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판매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회비로 손실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1997년도 미국표준협회(ANSI)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간행물판매는 전체수입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회비는 약 20%를 점하고 있다. 표준을 무료화 한다면 ANSI에서는 표준판매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회비를 300%이상 인상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단체에서도 회원자격이 있는 회사 및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신규회원의 영입도 어려워 질 것이다.

게다가 회비의 인상으로 혜택의 불공정(不公正)이 현저하게 심화될 것이다. 회비나 참가비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표준을 입수하는 표준사용자는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증액되는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개발과정에서 발언

권을 행사하지만 표준을 사용하는 모든 비회원에게도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다. 시간이 감에 따라 분담금 대비 혜택의 불균형이 뚜렷이 부각되어 분담금을 납부하는 회사들간에 불편한 관계가 발생된다. 회비의 인상으로 탈퇴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표준개발과정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업활동 모집단(母集團)은 소폭의 비율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용돌이처럼 하강되는 추세로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회사들을 분노케 함으로써 표준개발자의 수입이 감소되고 표준사용자의 참가를 위축시킨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이미 ANSI에 존재하고 있다. ANSI의 회원은 여러 해 동안 국제표준화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 공평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국내나 국제적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누리는 자들은 참가비를 더 이상 납부하려 하지 않고 있다. 1995년 ANSI이사회에서는 동 협회(Institute)의 장·단기재정전진화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연구할 Ad-Hoc Group을 설립하였다. 동 그룹의 주요 계약내용은 “ANSI의 존재가치는 뜻 있는 참가와 유용한 정보제공에 있지만 그 가치는 무료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일정한 서비스 혜택의 직접 수혜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회사 및 개체들은 표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모든 회사가 다 참가비를 납부할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회사가 표준을 구입할 여유는 있는 것이다.

실리추구, 합리적으로!

표준화자금제공 및 개발과정은 이상적이라 할 수는 없다. 용모(容貌)를 좋게 하기 위하여 코를 깎아 내는 대신에 코성형수술을 해야한다. 즉, 새로운 솔루션을 꿈꾸어야 한다. 인터넷을

충분히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솔루션이다. 인터넷은 태동하자마자 곧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우수한 매체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극소수의 SDOs만이 모든 이용가능성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한발 뒤로 물러서서 사용자를 위해 시장화된 제품으로서 표준을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며 우리는 무엇을 제공하였는가? 분명히 사용자들은 현상유지(status quo)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 내용의 직접제공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미래의 성공열쇠는 포맷과 가격 결정모델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내용이 충실한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자금을 제공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참가함으로써 합리화된 개발방법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표준을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과정에 필요한 표준판매수입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해야 할 것이다. 표준가격을 책정하는데는 공정하고 재정적으로 건전한지를 결정하도록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수료 시스템의 폐지에 관한 공통된 이론적 해석은

근거없는 사회적 통념에 불과하다. 표준의 원가는 사용가치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 아니며 수수료가 폐지되면 세계표준화과정에 참가하고있지 않은 회사를 밀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즉, 표준개발기관(SDOs)의 자금부족, 유통과 이용의 기술혁신 부진, 표준정보의 가치감소, 저작권 침해증가 및 자금조달과정에 불공정성 증대 등 무료표준의 부정적 결과는 명백하고 필연적인 것이다. 이제 대안을 생각해서 다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표준발행자, 조달업자 및 구매자들은 여러 SDOs와 제3 표준제공자의 재산에 "For Sale" 간판이 붙는 것을 볼 것이며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다.

Andrew Bank씨는 미시간주 Ann Arbor시에서 표준 기술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 CSSinfo(전 Custom Standards Service) 사업개발담당부사장이다. Andrew 씨는 동 회사를 창업하여 4년간 건실한 회사로 성장시키고 전세계사용자를 위하여 대중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ank씨는 미시간대학교에서 재료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 기사는 1998년 세계표준의 날에 기고하여 당선된 논문이다. 